

빅데이터 분석 안전사고 사전 예보한다

광주시 대대적 안전혁신 시책

'안전문화 3·3·3' 시민운동 전개

안전산업화 통한 일자리 창출

광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안전혁신 시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시는 지난해 안전한국훈련, 국가안전대진단, 비상대비훈련 3개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안전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예방시스템 구축,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안전 광

주'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산업화는 지역 안전산업 실태를 조사해 안전 산업박람회 지역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안전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또 빅데이터 관련 부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회 및 자연재난, 각종 사건·사고, 상시 모니터링 점검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월별·계절별·유형별로 분석해 안전사고 사전 예보제를 시행한다.

365일 무사고·무재해 안전 마을, 안전 학교, 안전 기업을 선정·홍보하고, 매일 가정·학교·직장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안

전점검도우미 선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등을 실시하는 '안전문화 3·3·3운동'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전문화 3·3·3운동'은 가정·학교·직장 등 3곳에서 교육·점검·신고 등 3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홍보·지원·단속 등 3가지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이다.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클린로드 시스템, 콜페이브먼트(차열포장, 차열보도블럭), 쿨루프(옥상 차열도장), 녹색커틀(벽면녹화), 쿨링포그(물안개 분무) 등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자치구별로 1곳씩 대규모 야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방

안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 밖에도 혼자 사는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설치 사업(자치구별 1곳)과 수영대회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 환경·식품·공중 위생업소를 중점 관리하는 민생사범 기획수사를 강화한다.

정민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민선 7기 재난안전 혁신 행정을 통해 안전일지리를 창출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범시민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등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취약시설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립무등도서관 사진동아리 '빛여울' 회원 작품전

광주시립무등도서관은 새해를 맞아 광주의 아름다운 풍경부터 동유럽의 멋진 풍경을 담은 사진 작품을 31일까지 1층 갤러리에서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Nature and Reality Modern Photo'를 주제로 한 광주지역 사진동아리 모던사진클럽 '빛여울' 회원들의 작품이다. 빛쫓이 만개한 운

천저수지, 겨울 무등산 서석대, 덕유산 저녁 노을 등 국내 절경과 함께 슬로베니아 블레드 호수,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호수 등 해외 유수의 관광지를 담은 37점이 선 보인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희망인사시스템 적용

광주시 5급 이하 전보인사

5분의 3 희망부서 배치

이용섭 광주시장이 도입한 희망인사시스템을 통해 광주시가 14일자 5급 이하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전보인사대상 508명 가운데 5분의 3 이상은 개인 희망부서와 부서 추천이 일치했다. <명단 22면>

13일 시에 따르면 직원들은 희망인사시스템을 통해 직접 일하고 싶은 부서 1~3순위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서도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추천할 수 있다. 승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자신의 장점과 업무 성과를 직접 어필할 수 있다. 인사와 관련 청탁이나 외부 입김을 없애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시스템 도입의 취지다.

시는 "이번 인사에서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수직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현부서 1년 미만 근무자 전보 제한,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 순차적 전보 ▲희망인사시스템에 올린 개인희망부서 최대한 존중, 부서추천과 일치된 경우 최우선 반영 ▲조직개편, 업무능력, 개인고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5급 123명, 6급 이하 385명 등 508명 가운데 개인 희망부서와 부서 추천이 일치한 경우는 312명(61.42%)이었으며, 개인 희망부서 또는 부서 추천 중 어느 하나인 경우 105명(20.67%)이었다. 승진자나 휴직 복직자 91명(17.91%)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주민협의체 주도로...서구 상무2동 도로 한쪽주차제 시행

광주시 서구 상무2동 쌍쌍일촌 주민협의체가 상가밀집지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소방도로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도로한쪽주차제를 시행한다. <사진>

13일 서구에 따르면 주민주도로 진행되는 한쪽주차제는 14일부터 KT상무빌딩에서 영암마트까지 구간으로 시행된다.

도로한쪽주차제는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막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쪽 차선의 불법 주차차를 막고 한쪽 차선에만 주차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한쪽주차는 흡수담, 짝수담으로 나누어 한쪽차선 홀짝제를 시행하고 주차허용 구간 외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로 즉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쌍쌍일촌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로한쪽주차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면서 "앞으로 상무2동 불법주차 상습 지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광주시 올 전기·수소저상버스 36대 시범운영

광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전기저상버스 30대와 수소저상버스 6대 등 저상버스 총 36대를 시범도입한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시내버스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출입구가 계단 대신 경사판으로 설치됐으며 차체바닥이 낮다. 현재 01번, 07번 등 35개 대형버스노선에 213대가 운

행되고 있다.

시는 올해 전기저상버스 30대를 전기충전인프라 설치가 가능한 공영차고지를 중심으로 하는 노선에 도입하고 2022년까지 248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환경부와 MOU를 체결한 후 올해 처음 도입하는 수소저상버스 6대는 수소충전소를 경유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된다. 2022년까지 총 66대를 도입해 광주지역 미세먼지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광주 시내버스 999대 중 21%인 213대가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까지 운행대수의 45%인 450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가 개발 중인 중형 저상버스를 중형 버스 노선에 보급한다.

저상버스는 광주광역시버스운영정보(BIS)에서 버스 도착시간을 확인하거나 '광주교통약자버스' 예약 어플에서 탑승예약을 하고 하차 시 하차별 누름도 미리 요청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홍역 예방접종·의심환자 신고 당부

광주시는 최근 대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9명(1월 10일 기준)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홍역 예방접종과 의료기관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다.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이 이어 피부 발진 증상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

종률은 98%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12개월 미만 영아, 면역력이 저하된 고위험 대상자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 접종 일정한 생후 12~15개월, 만4~6세 등 총 2회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을 빠짐없이 마치고, 누락된 접종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서구, 광주·전남 첫 '한국형 청소차' 6대 도입

광주시 서구는 올해 1월부터 광주·전남 최초로 '한국형 청소차' <사진> 6대를 도입·운영한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은 2018년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형 청소차 모델'로 개발한 차량이다. 한국형 청소차는 작업구간 이동시 안전하게 승·하차가 가능하고 시가지, 골목의 좁은 도로 같은 지형을 고려해 설계됐다.

그 동안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상

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청소차 후미의 발판에 몸을 매달린 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곤 했다.

이번 도입차량에는 안전한 탑승공간 확보, 360도 회전식 어라운드 뷰, 승·하차 및 외부작업 확인, 후방 양수 조작스위치, 파카 하강 체크밸브, 운전자와 작업자간 의사소통, 압축된 안전장치 등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 등을 갖추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2번지의 4필지, 대지 약540평 (343-2-141평, 343-1-260평, 344-30평 / 341-80평,340-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6차선 도로접, 전면75M
- 대출-22억7000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상담후결정
- 문의 - 010.3605.5000